

전통과 현대의 교차점에서 존재의 경계에 선 여성의 초상

한지는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다. 그 질긴 섬유질과 유연한 촉감,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특성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과 예술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왔다. 이순희 작가의 『그녀』 연작은 한지의 질감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체성과 존재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녀'라는 지시 대명사를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익명적인 인물을 그려내며, 개인의 서사와 집단적 정체성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이는 동시대 한국 사회 속 여성의 위치, 그리고 그들이 처한 다층적인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한지의 질감 표현은 회화,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한지를 찢거나 주름지게 하여 표현한 작품은 거칠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옷칠을 더한 작품은 고급스럽고 독특한 질감을 준다. 특히, 염료 번짐 효과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한다. 한지를 다양한 재료와 결합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현대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다. 또한, 한지의 질감을 살려 조명이나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작하여 공간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순희가 즐겨 사용하는 한지의 섬유질은 자연스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지, 필자가 《그랑팔레》의 웅장한 전시장에서 개최된 ART CAPITAL 2025 전시회의 <살롱 앙데팡당>에 출품한 이순희의 작품 『Her-Fragments identity』를 보자마자, 요즈음 유럽의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 스킨케어 제품 구매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직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의 '도자기 피부' 또는 '유리빛 피부'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K 뷰티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 위에 펼쳐진 이순희가 표현한 여성의 형상들은 종종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해체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사회적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 저항을 반영한다. 이는 곧 여성의 삶이 단순히 '보존'이나 '순응'의 서사가 아니라, 상처를 딛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순희가 제시한 한지와 여인의 결합은 또한 한국적 정체성과 글로벌 여성주의 담론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순희의

작품은 한지, 멕, 커피, 아크릴이라는 재료의 혼합을 통해 동양 매체의 전통성과 현대 미술의 표현성을 동시에 묘사한다.

이순희의 '그녀'들은 이름 없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익명성을 넘어,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쉽게 일반화되고 대상화되는지를 반영한다. 동시에 이러한 익명성은 '그녀'들이 특정 개인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목소리를 지니게 한다. 각각의 '그녀'는 개별적인 서사를 내포하면서도, 모든 여성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집단적 초상으로 기능한다. 작품 속 '그녀'들은 때로는 단조로운 색채와 정적인 구도로, 때로는 왜곡된 형태와 불안한 표정으로 표현된다. 이는 이순희가 여성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억압, 혹은 해방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시도로 읽힌다.

이순희의 회화 속에는 경계와 균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인물과 배경의 경계는 종종 명확하지 않으며, '그녀'들의 신체 또한 완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여성의 존재가 끊임없이 규정되고 해체되는 현대 사회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반영한다. 특히 일부 작품에서는 '그녀'의 신체 일부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거나, 의도적으로 구성이 단절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시각적으로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이 얼마나 자주 맥락 속에서 왜곡되는지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순희의 『그녀』 연작은 단순한 여성 초상화가 아니다. 이는 정체성, 사회적 억압, 그리고 존재의 모호함을 담아낸 동시대적 비평이다. 작가는 '그녀'라는 지시어에 수많은 의미를 중첩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성의 얼굴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주변에 있지만, 동시에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다. 이순희는 바로 이 모순과 긴장 속에서 여성의 존재를 해석하며, 이를 통해 동시대 미술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서사를 새롭게 제시한다.

뻬에르 쿠르
국제 앙드레말로 협회장